



‘희망산타 원정대’ 발대식
1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야외광장에서 열린 ‘2013 광주신세계 희망산타 원정대’ 발대식 행사에서 산타복장을 한 원정대원들이 출발을 알리는 풍선을 날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희망산타 원정대’는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연말연시 사랑나눔 캠페인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시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총리 참석 구성지구 기공식...10년만에 첫 삼 뜬 J프로젝트

민자유치·진입도로 개설 우선 과제

골프장·휴양숙박시설 등
1만8000명 기업도시 조성

전남도가 13일 영암·해남 일대의 지도를 바뀌놓을 서남해안관광대지 도시(J프로젝트·브랜드명 솔라시도) 구성지구(20.9km) 개발사업의 기공식을 연다. 구성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라 7조9800억원을 들여 조성되는 J프로젝트도 10년 만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반면 막대한 초기 투자비 마련과 주민 이주 대책, 진입도로 개설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전남도는 12일 “J프로젝트와 구성지구 작공을 겸한 기공식이 13일 오전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현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와 박준영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민 1000여 명이 참석해 풍물패 길놀이 등 식전행사와 경과 보고, 브랜딩 선포식, 도지사 환영사, 국무총리 축사, 기념발과 순으로 진행된다.
J프로젝트 3개 지구 중 하나인 구성지구는 해남군 구성·사공·덕송리 일대에 골프장, 휴양숙박시설 등을 갖춘 인구 1만8000여명 규모의 관광대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2단계로 나눠 총 4조6800억원(기반시설 포함)을 투입해 2025년까지 토지매입과 진입도로 건설 등 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호텔 및 리조트, 통합의학병원, 휴양 숙박시설 등을 건립한다.
하지만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의 절반에 가까운 433억원이 이미 땅값 매입에 들어간 데다 대부분 사업을 민자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전남도는 이날 기공식에 중국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에 따라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 이주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구성지구 내의 사유지는 5개 마을 4.6km, 2789필지에 달하고 143세대 334명이 이주해야 한다.
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서호IC와 구성지구를 연결하는 J프로젝트 진입도로(10.9km)는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J프로젝트의 입구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진입도로는 건설비용이 2756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을 전남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도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역 중이며,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는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진입도로의 경우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원주와 태안 등과 공동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한집 건너 파스타·이자까야·쌀국수·케밥·멕시코 맛집

광주 동구 구시청 사거리 세계음식문화 거리 변신

이탈리아 파스타는 기본, 베트남 쌀국수와 터키 케밥 그리고 멕시코 요리까지.....
구도심의 쇠락과 함께 외면받았지만 최근 ‘젊음의 거리’로 다시 살아난 ‘구시청사거리’ 일대가 ‘세계 음식 맛집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12일 광주시 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멕시코 요리 전문점 ‘데킬라즈’가 총창로에서 구시청사거리로 이전, 새롭게 문을 연 데 이어 최근 터키 케밥전문점 ‘메르하바’가 어번폴리 주변에 입점해 영업하고 있다.
이들 가게들이 젊음을 사이에서 최신 유행하던 이자까야(일본식 주점)류 업소와 이탈리아 음식점,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인 ‘포베이’ 등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구시청사거리 인근에만 ‘키친 더 배란다’등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과 이자까야 10여 개를

비롯한 베트남, 인도 음식점 서너 곳이 영업중이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케밥 전문점 ‘메르하바’를 오픈한 알리(32)씨는 “젊은 이들이 많이 다니고 위치가 좋아 서인진 손님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며 “광주에 사는 외국인인과 젊은 층이 주고객이지만 임소문을 타고 목포나 순천, 여수 등에서도 찾아온다”고 말했다.
케밥집을 찾은 박희영(24)씨는 “터키에 가서 먹어본 경험 있어 반가운 마음에 사먹게 됐다”며 “이 곳이 젊음의 거리이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곳이어야 하는 만큼 이런 세계 음식점이 여러 곳 생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반겼다.
멕시코 요리 전문점인 ‘데킬라즈’도 최근 뜨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파하파, 브리토, 타코, 퀘사디야 등 다양한 멕시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조금은 생소한 멕시코 음식과 주류를 팔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

서 인기를 끌며 외국인인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런 가게들은 음식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가게의 특성상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강성주(38) 데킬라즈 대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한 데 어우러져 식사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메뉴도 한국적인 것과 외국인적인 것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시청사거리는 동구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아시아 각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맛 볼 수 있는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곳에서 맛집촌으로서 역할과 함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의 성공 여부도 주목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철도파업 물류대란 현실화 주말 최대 고비...노조, 이사진 고발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12일 대체 인력이 여객수송에 집중됨에 따라 화물열차가 사흘째 평시의 30%대 운행에 머물러 연말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에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 파업에 따른 안전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노사협상은 파업 이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파업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이다. 파업 첫날 운행률이 48%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운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유류·석탄·시멘트·수출입 컨테이너 등 물류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나흘째인 이날 새벽 0시50분께 경북 의성군 중앙선 비봉역과 탐라역 사이에서 기차 바퀴가 부서지며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을 두고 노사가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정비 불량과 대체 기관사 투입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간 ‘강 대 강’으로 맞선 가운데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서

을 수사할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를 의결한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코레일은 12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860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 수는 7608명으로 증가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법 파업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국제행사성공은 시민의 힘으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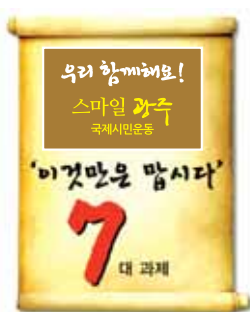
우리 함께해요! 스마일 광주 국제시민운동

세계수소에너지학술대회 | '14. 6. 5 ~ 6. 20
국제디자인연맹총회 | '15.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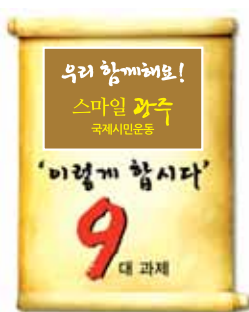
제10회 광주비엔날레 | '14. 9. 5 ~ 11. 9
제11회 광주비엔날레 | '16. 9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15. 7. 3 ~ 7. 14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19. 7 ~ 8월

제6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15. 9월



- 1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서 흡연하지 맙시다
- 2 길거리에서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 3 길거리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맙시다
- 4 함부로 침을 뱉지 맙시다
- 5 인도에서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지 맙시다
- 6 끼어들기, 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하지 맙시다
- 7 불법 주차차를 하지 맙시다



- 1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합시다
- 2 존댓말과 고운 말을 씁시다
- 3 길안내를 친절하게 합시다
- 4 공공장소에서 통화예절을 지킵시다
- 5 내집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꾸시다
- 6 애완동물 사육규칙을 지킵시다
- 7 차량정지선과 교통신호를 지킵시다
- 8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줍시다
- 9 에스컬레이터는 두줄로 서서 타고, 뛰거나 걷지 맙시다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일보가 함께 합니다.